

REPORT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



# ‘자연미술’로 하나된 예술가들

지난 4월 10개국의 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3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자연미술’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열렸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생태계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예술인들이 한반도 남단을 누비며 자연과 교감하는 작품을 만들고 토론과 대화를 이어갔다. 일군의 ‘유목민’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하고 전 세계를 중횡무진하는 속도의 귀재이기는커녕 오히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며 자연, 환경, 생명의 화두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든다. 필자는 한국에서 자연미술이 탄생하고 전개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의미 있는 ‘자연미술 네트워크’가 설립됐다고 평가한다. / 윤진섭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남단에서 이루어진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코리아 2014는 10개국의 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3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가 주관, 기획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성사됐다. 작가들은 약 2주에 걸쳐 공주를 비롯하여 군산 고창 담양 목포 제주 부산 창원 경주 안동의 순서로 각 지역을 탐방하면서 사진, 오브제, 설치, 영상, 드로잉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현장작업을 전개했다. 이 기간 제작한 작업은 지난 5월 금강자연미술센터에서 결과전 형식으로 소개됐다.

면밀하게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이동하며 이루어진 행사는 실로 강행군 그 자체였다. 낮에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밤에는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발제와 특정 주제에 따른 세미나 발표가 이루어졌다. 4월 13일 공주에서 이루어진 워크숍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의 자연미술 운동-야투’를 소개하는 이응우의 발표에 이어 2부 프로그램으로 ‘바깥미술’에 대한 정혜령의 소개가 있었으며, 그 다음날에는 군산 창작문화공간 여인숙의 큐레이터가 본인의 공간을 소개했다. 국외 공간의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이란의 자연미술 및 개인작업’이라는 주제로 마흐무드 막타비의 발제가 있었다. 24일에는 불가리아 작가 루멘 디미트로브가 불가리아의 두피나 아트 그룹에 대한 소개하는 등, 행사는 국내외 작가들의 네트워킹 자리이기도 했다.

문화와 인종,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 예술인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 여행, 작업을 통해 상호 소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유목

프로젝트가 지닌 장점임에 분명하다. 대형 버스 1대에 몸을 싣고 물설고 낯설은 지역을 탐방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일은 속도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인 듯 보인다. 하지만 몸으로 부딪치는 아날로그 공간에서의 몸의 수행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는 독특한 삶의 유형과 실천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현장에서 직접 영감을 얻어 작업해 온 국내외 작가들이 한국 국토를 탐방하면서 지리 환경 문화 역사적 특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업하면서 이동하는 노마딕 프로젝트”라는 주최 측의 설명은 이 행사가 인문학적 탐사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말해 준다.

## 한국 자연미술의 탄생과 역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 한국에서 ‘자연미술’(Nature Art/Jayeonmisul)이 탄생한 배경과 전개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전사(前史)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있어야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왜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개국 자연미술가들이 내한해 한국의 자연미술가들과 호흡을 함께 하는가 하는 독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주는 완만히 굽이쳐 흐르는 금강을 끼고 형성된 백제의 고도(古都)이다. 1981년 여름, 일단의 젊은 작가들이 금강 백사장에서 만나 자연의 품에 안기기로 약속했다. 자연미술 그룹 ‘야투(野投)’는



각 나라 작가들이 한국의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은 다른 듯 달랐다. 루마니아의 피터 알파르는 모래톱에 홀고 지나간 파도의 흔적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그 맨 윗줄에 드러누워 또 하나의 선을 만든다. 인도의 소무 데사이는 건초를 한 움큼 쥔 채 수풀 가장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몸을 서투르게 숨긴다. 스코틀랜드의 린 베넷 맥켄지는 해변에 떠내려 온 해초를 모아 둥그런 요를 만든 뒤 그 위에 웅크린다. 모래, 풀, 해초에 각자의 몸을 밀착시켜 자연과 하나됨을 표현했다.

위 · 소무 데사이(Somu Desai)  
〈무제〉 퍼포먼스 2014  
아래 · 린 베넷 맥켄지  
〈드러남과 사라짐 VI, 제주 협재해변〉 퍼포먼스 2014

이전 페이지 · 피터 알파르  
(Peter Alpar) 〈Intervention VII.b〉 퍼포먼스 2014



오른쪽 · 고승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나무 조각, 돌 2014\_제주 중문 대표해안에서 주운 나무 조각에 돌맹이를 얹고 물 위에 띄워서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작품이다.

오른쪽 페이지 · 권오열 〈낯선 숲〉 연작 중 〈Domesticated Life〉 디지털 사진 2014\_ 사진가 권오열은 한 발짝 물러선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연이 이룬 예술적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낸다.



그렇게 탄생했다. 원래는 농구 용어이나 문자 그대로 ‘뜰에 몸을 던진다’는 의미로 새기면 벌거벗은 채 자연에 몸을 투신하는 행위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히 잡힌다. 고승현 이용우 전원길 등 야투의 초기 멤버와, 이후 참여한 정연민 이성원 등으로 구성된 ‘사계절연구회’는 1년 중 네 차례에 걸쳐 자연의 품에 안기는 원초적 행위를 펼쳐 나갔다.

서울에서는 이보다 조금 앞선 1981년 겨울 <대성리>전 멤버들이 찬바람이 부는 대성리 화랑포 북한강변에 모여 자연의 축제를 벌였다. 김정식 홍선웅 강용대 임충재 문영태 등 <겨울, 대성리 31인>전의 멤버들은 기존 화단이 모더니즘의 문맥 안에서 도시의 미학을 관찰해 나간 것에 반발해 자연의 품으로 귀의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야투의 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초기 대성리전 멤버들의 자연에 대한 발상이 대부분 개념미술로 통칭되는 1970년대 미술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던 것에 반해, 야투는 보다 원초적인 몸짓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을 이룬다. 야투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사계절연구회’는 철저히 몸의 퍼포먼스를 보여 줬다. 그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물을 이용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자연과 철저히 동화되는 원초적 행위였다. 그들은 사계절의 변화에 주목하여 산과 들, 강, 바다로 나아갔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자연이 베푸는 산물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자연에 동화시켰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의 예술 의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 균형감각은 인간 문명을 바라보는 선명한 관점에 뿌리박고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당시는 생수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으나 3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물을 사서 먹는 시대를 살고 있다. 30년이란 세월은 사물에 대한 관념을 바꿔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그 기간 동안 오염된 땅과 물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꿔 놓았다.

야투의 멤버들이 보여 준 선구자적 해안은 도도히 흘러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로 접목되면서 급기야는 야투아이(Yatoo-I)인터내셔널프로젝트를 탄생시켰고, 그것은 급격한 속도로 국제적 규합을 이루어 세계적 연결망을 성사시켰다.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모태로 탄생한 신생 대규모 ‘자연미술’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자연의 위기, 나아가서는 ‘생태(ecology)’의 위기에 대한 예술가들의 불안한 예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3년 10월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2013 국제자연미술기획자대회>에 세계의 자연미술 관계자들이 모인 이유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훼손 내지는 생태의 위기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극복, 보다 건강한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미술인, 자연미술에 대해 이해를 좁히다

영국의 클라이브 아담스를 비롯하여 캐나다의 존 그랜드, 이탈리아의 자코모 비앙키, 미국의 그랜드 파운드, 불가리아의 루멘 드미트로브, 벨기에의 수 스페이드, 핀란드의 루오마스 코칼로 등은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과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미술 단체를 이끌어 온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미술가들은 운동 초기에는 상호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자연미술 운동을 펼쳐 왔다. 관심사는 비슷했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서로 달랐다. ‘자연미술’이란 용어는 서구권에서 개념적으로 생소한 편이며 지금도 서구에서는 ‘대지예술’이란 용어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편이다.

자연미술에 대한 이해가 좁혀지게 된 계기는 야투가 행한 일련의 행사에 힘입고 있다. 2004년에 창설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비롯하여 프레비엔날레, 그리고 원골 자연미술의 집에서 열리는 레지던시를 통해 세계 미술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면서 용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야투는 1981년 창립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117회의 사계절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연미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왔다. 1991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제자연미술제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전신이다. 그 사이 야투 회원들은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루마니아, 헝가리 등 세계 각지 자연미술 행사에 참가한 경험을 통해 국제적 비전을 갖추게 되었다. 국제자연미술가대회를 통해 자연미술의 종주국으로 각인된 한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진행될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미나에서 기초발제를 맡은 필자는 프로젝트의 의의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발원한 지류들이 합쳐져 크게 세(勢)가 불어난 자연미술이 드디어 바다로 진입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규정하면서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라는 전 지구적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미술인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모색하며 이를 하나의

## 자연 속에서 만나는 유목의 예술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 참여작가 인터뷰 / 채연 기자



디아나 라다비시우테(Diana Radaviciute) / 작가, 리투아니아  
자연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 하나가 되어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자연은 모든 것을 가진 팔레트와 같다. 한국 자연미술가들은 질투 날 만큼 좋은 환경과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을 더 알고 싶고, 더 머무르고 싶은 '꿀주림'이 훨씬 더 강해졌다.



전원길 / 한국,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 디렉터, 자연미술가협회 디렉터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작가들이 가깝게 연대할 수 있었던 점이 더욱 큰 수확이다.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자연 속에서 같이 작업할 때는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또한 이동하며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술가들은 경쟁하기보다 돈독한 유대 관계를 키워 갔다.



린 베넷 맥켄지(Lynn Bennett-Mackenzie) / 케헬국제레지던시 설립자, 스코틀랜드  
자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자체이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연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연을 체험하면서 큰 영감을 받았다. 2015~2018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는 한 대륙에서 또 다른 대륙으로 넘어 가는 기획으로 작가들이 주고받을 영감은 실로 강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델핀 소라(Delphine Saurat) / 작가, 프랑스  
자연을 활용한 사진 작업을 주로 해온 터라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다른 작가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 더 발전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경험한 점이 많았다. 만난 지 불과 이틀 된 사람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자 그 공백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자연 안에서 작가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정혜령 / 바깥미술회 부위원장  
바깥에서 작품을 제작하다 보면 자연의 강한 힘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바람을 맞으며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체험하다 보면, 나 역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이번 방문지들은 내게 익숙한 장소였지만 작업하러 가까이 다가가 자연과 눈을 맞추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낼 수 있었다. 다만 계속 이동하며 짧게 작업하는 상황이 작가 스스로의 만족을 넘어 관람자 혹은 땅이나 지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애니 시니만(Anni Snyman) / 국제랜드아트비엔날레 공동감독,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한국의 자연은 내게 너무나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생태계였다. 세계의 자연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자연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우리의 정의를 뛰어 넘는 대상이다. 굳이 자연을 일련자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으로 인식, 전 세계에 그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클라이브 아담스나 존 그랜드 같은 세계의 이론적 권위자들이 생태와 자연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자연미술을 “착취와 폐허, 오염으로부터 자연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클라이브 아담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자연미술이란 용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가장 심오한 형식의 생태학적, 사회적 예술, 디자인 혹은 건축”이라고 표현하여 자연미술이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는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존 그랜드 역시 “새로운 전 지구적 윤리,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지구촌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연 존중에 대한 상호 소통 윤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움직이는 자연과 미술’을 주제로 전개된 이번 프로젝트는 2015~2018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행사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노트북, 인터넷으로 무장한 현대의 유목민들이 전지구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기민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 북남미 등 각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에는 6대주를 관통하게 될 이 장기 프로젝트는, 생태 지리 문화 환경 등 인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예술가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탐사를 접맥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 세계의 노마드, 한반도 중남부를 탐사하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참여 작가들의 작업 상황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실시간 중계되었는데 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과 공유, 트위터의 경우 트윗과 리트윗으로 화답하여 유목적 이동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참여 작가인 동시에 프로젝트 디렉터인 전원길은 굵은 대나무에 침을 발라 색이 진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거나 구멍이 송송 뚫린 제주도의 둥근 돌을 이용해 여러 층의 탑을 쌓은 뒤 맨 위의 돌은 녹색의 해초로 감아 선명한 자연색의 대비를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는 자연의 이법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자연미술의 진수를 보여 준다. 야투 위원장이자 참여 작가 고승현은 갈라진 땅, 고인돌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돌 등 자연물의 틈에 나뭇잎이나 식물의 마른 줄기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이는 자연에 대한 야투의 초기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일 것이다. 이번 행사의 사진 기록자이자 참여 작가인 권오열은 돌에 낀 이끼, 풀, 나무의 잔뿌리 등 정지된 상태의 극미한 자연 질서의 세계를 사진에 담았다. 그는 일체의 인공적 조작을 배제한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다.

프랑스 작가 델핀 소라는 공주에 처음 도착한 날 연미산

피터 알파르 <Intervention VI.b> 돌 2014\_ 제주 중문  
 대포해안에서 주운 수십 개의  
 돌로 현무암 위에 아슬아슬하게  
 담을 쌓았다. 커다란 바위 위에  
 늘어선 돌탑의 행렬이 하나의  
 거대한 드로잉처럼 보인다.  
 알파르의 초기 작업은 설치와  
 퍼포먼스 작업이 주를 이뤘으나,  
 2008년 이후부터 자연미술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2012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013국제자연미술 기획자  
 대회에 이어 이번 행사까지  
 3년 연속으로 한국을 찾았다.





자연공원에서 너무 늘어 쓰러져 구덩이에 처박힌 고목을 찾아냈는데, 그는 프로젝트가 공주에서 시작해 공주에서 끝난다는 점에 착안해 이 고목을 이용한 설치작업을 진행했다. 리투아니아 작가 디아나 라다비시우테는 강변의 갈대숲에 긴 나뭇가지를 가로로 설치하고 그 위에 10여 개에 이르는 새의 깃털을 꽂거나 흙을 쌓고 그 위에 가로 세로로 돌을 얹어 마치 고인돌을 연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해 자연의 영성을 불러내는 듯한 야외 현장 설치 작업을 제시했다. 남아공의 애니 시니만은 강변의 모래톱을 따라 가는 나뭇가지로 수백 미터에 이르는 S자 형 곡선을 반복적으로 드로잉하거나 거대한 제주 현무암 위에 흰색의 새털을 놓는 작업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작업들은 이내 파도에 씻겨 드로잉이 지워지거나 바람에 새털들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자연 앞에 영속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순임은 나지막한 구릉을 이룬 땅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모아 작고 아담한 성을 쌓는다든지, 짚신 형태의 사물을 만들고 그 안에 꽃을 가득 담아 연속적으로 물에 띄우는 현장 작업을 선보였다. 또는 풀을 이용하여 새 둥지 형태를 만들거나 강변의 흙을 원형으로 쌓아 고대 제의의 원형을 연상시키는 작업을 보여 주었다.

###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공감대

몸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작가로는 이응우를 들 수 있다. 그는 갈대가 우거진 숲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명상을 하거나, 나체로 서서 자연과 신체의 직접적인 교감을 꾀하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는 거대한 암석 아래의 틈에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끼워 넣는 작업을 선보인 피터 알파르(헝가리)의 작업과 통하는 것이다. 반면에 마흐무드 막타비처럼 바다의 세찬 파도에 몸을 던지거나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의 모습에 조용하여 몸을 활처럼 꺾는 거의 곡예 수준의 퍼포먼스를 벌이는 작가도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작품 간의 공통점은 자연적 대상을 현저히 변형시키거나 금속 플라스틱 등 문명적 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사물을 이용하여 약간의 시각적 트릭이나 유머, 재치 등을 순발력 있게 보여 준 점이다. 자연을 대하는 작가들의 시선이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30년간 야투가 추구해 온 ‘자연미술’의 개념에 근접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면 피부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하여 SNS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속도 중심의 사회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동화하여 ‘느림의 미학’을 실천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촉발했다는 점일 것이다. 국적과 인종, 성별, 거주 지역의 한계,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 예술을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을 꾀하는 일은 어쩌면 예술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지도 모른다. 바다 강 들 섬 숲 등 한국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4년간 전개될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의 발신기지로써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위부터 · 디아나 라다비시우테 <Black Stars> 돌, 낚시줄 2014 / 고희희 <제주, 뚜벅이> 돌멩이, 지푸라기 2014 / 정혜령 <눈물 그릇> 돌멩이, 물 2014\_세 작가 모두 제주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멩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했다. 현무암, 화강암 등 다른 색깔과 성질의 돌멩이로 각각 하늘에 떠 있는 검은 별, 발자국, 눈물 고인 눈동자를 표현했다. 완성된 작품은 사진으로만 남고, 이후에는 현장에 남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왼쪽 페이지 위 · 마흐무드 막타비(Mahmoud Maktabi) <연결> 죽은 나뭇가지, 나무 두 그루 2014 / 아래 · 마흐무드 막타비 <마즈다 아파라이드(Mazda Afaride)> 2014\_이란의 막타비는 주술적 내용을 담은 조각과 퍼포먼스 작품을 전북 고창과 충남 공주에서 각각 고창과 충남 공주에서 각각 선보였다. <연결>이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했다면, <마즈다 아파라이드>는 자연의 품에 안긴 피조물을 상징한다.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 짓는 우리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